

영남 지역의 하위 방언구획에 대한 종합적 연구

김 덕 호*

- I. 머리말
- II. 한국의 방언구획론 연구
 - 1. 선행 연구
 - 2. 통합적 방언구획론의 개선방안
- III. 영남 방언권의 하위 방언구획
 - 1. 양적 연구 방법에 의한 구획
 - 2.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한 구획
 - 3. 혼합적 연구 방법에 의한 구획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방언학에서 중요한 과제인 방언구획론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있다. 방언구획론은 하나의 언어권이 몇 개의 방언권으로 구분되고, 그 차이는 무엇이며, 분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목표인 방언학의 중심 연구 과제이다. 방언학 연구는 각 방언의 체계를 기술하여 비교하고 상호관계를 찾아내고 분열의 단계를 추론하여 지리적으로 구획하면서 한 나라 언어의 생성과 변화에 대한 정보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idhkim@knu.ac.kr

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언구획론은 방언학 연구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연구 과제인 동시에 방언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방언구획에 대한 연구들은 단편적인 방언 경계와 몇 가지의 등어선 흐름을 분석하여 방언구획을 시도해왔는데, 이런 구획에 대한 결과가 다소 분명하지 못했고, 논리적인 설명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본고는 방언구획을 하는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 방언구획에 대한 기존의 연구업적을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고, 두 가지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혼합적 연구 방법과 이를 정밀하게 통계 처리하는 개선된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 주제어

방언구획론, 경북방언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적 연구, 시분면 산점도 좌표 분석법

I. 머리말

방언구획을 목적으로 논의를 전개할 경우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등어선(等語線, isogloss)이다.¹⁾ 그 이유는 방언 경계(dialect boundary)를 설정할 때, 언어지도 상에서 구획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등어선(isogloss)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등어선이란 용어는 동일한 언어사용 습관이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선(線)이란 개념이지만, 한편으로는 언어적인 배타성도 전제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방언권을 찾는 것은 이러한 등어선이 여러 가닥으로 겹친 등어선속의 두께를 측정하여 작은 지역들을 큰 지역으로 묶어 나가는 일을 말하고, 방언구획을 한다는 것은 방언체계를 기준으로 대상 지역을 작은 지역으로 나누어 가는 일을 말한다.(시바타 타케시, 柴田武 1964:18-21, 최명옥, 1994:880) 도조마사오(東條操, 1954)는 방언학 연구의 출발은 방언구획론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즉 방언구획론은 하나의 언어가 몇 개의 방언으로 구분되고, 그 차이는 무엇이며, 분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방언학 연구의 중심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는 이를 위해 각 방언의 체계를 기술하여 비교하고 상호관계를 찾아내고 분열의 단계를 추론하면서 한 나라 언어의 생성에 대한 정보를 지리적 구획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언학 연구를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과정으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현장 조사는 특별한 방언질문지를 만들어 그 범위 안에 항목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조사법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20세기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활용한 몇 가지 조사법과 연구 방법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20세기 실증주의 패러다임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한 양적

1) 방언학 연구에서 등어선(isogloss)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어떤 언어적인 특징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갖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을 구별하는 경계를 나타내는 언어지도(linguistic atlas)상의 線을 의미한다.(개정증보판 언어학사전 1987:478)

연구 방법과 문헌 연구와 양적 연구의 방법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도입한 질적 연구 방법, 이 두 가지를 병행하거나 통합하는 혼합적 연구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언어학 분야에서는 언어의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 주로 양적 연구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어과학 분야를 문화라는 질적 현상으로 탐구하려는 노력이 대두되면서 종래의 양적 연구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질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김덕호, 2014:11)

본 연구를 통해서 방언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인 방언구획론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미 방언지도로 구축된 경북방언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제안한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영남 방언권 중에 경북 지역의 하위 방언구획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 과제를 설정한다.

첫째, 김덕호(1999)에서 제안한 통합적 방언구획의 분석 방법론보다 더욱 정밀하게 처리하는 통계 처리 방안을 개발한다.

둘째, 방언구획론 연구 방법에 사회과학적 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적 연구법과 질적 연구법 및 혼합적 연구법을 적용한다.

셋째, 방언 화자의 지각적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 방언 경계(dialect boundary)에 대한 심리(비언어학적 기준)에 어떤 언어학적 요소가 작용하는지 확인한다.

넷째, 지역민의 의식을 기준으로 설정한 인상등어선(印象等語線, impressive isogloss)과 이러한 인지적 구획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지각방언학(知覺方言學, Perceptual Dialectology)이 방언학 연구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한다.

II. 한국의 방언구획론 연구

1. 선행 연구

한국에서 이루어진 방언구획에 관한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등어선속의 두께에 의한 방언구획론이다. 등어선속의 두께는 기본적으로 묶음에 포함되는 등어선의 수에 따라 설정되기도 하고, 등어선의 특성, 즉 음성, 음운, 어휘, 형태, 문법, 의미 등에 따른 차등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등어선도 여러 지역을 걸쳐 연속되는 개별 등어선으로 설정하고 그 등어선 묶음의 두께를 측정하는 전체등어선속이 있다. 그리고 인접 두 지점 사이의 모든 등어선(등어선의 등급은 고려하지 않음)으로 규정하여 각각의 등어선속의 두께를 측정하는 부분등어선속이 있다. 최명옥(1994:890)은 등어선속 두께에 의한 방언구획의 경우 등어선의 등급에 따라 차등 기준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체등어선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등어선의 등급화는 이론적인 가정이고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지만 등어선의 성격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방언구획의 시도는 이익섭(1981), 김충희(1992), 최명옥(1994), 정철(1997) 등이 있다.

다음은 언어적 거리(linguistic distance)에 의한 방언구획론이다. 이 방법은 프랑스 세귀(J. Seguy)가 가스코뉴(Gascony) 지역을 대상으로 인접 지역 사이의 언어적 거리 차이를 백분율로 통계 처리하여 친소의 관계를 밝히면서 방언권 설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대상 지점 간의 언어적 거리 차이를 두께가 다른 연결선으로 표시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 방법은 모든 언어적 특징을 동등하게 보고 방언형의 개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 방법은 이기갑(1986), 김택구(1991) 등에 의해 시도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통계적인 처리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를 증명할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등어선의 성격에 따라 차등 등급화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언구획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등어선의 등급화를 고려하는 방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최근 방언 간의 유사도를 계량적으로 처리한 네트워크 분석과 하위 방언권을 수형도(dendrogram)로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시도한 정성훈

(2016)이 있다. 이 연구는 수형도(dendrogram)를 통해 하위 방언권의 군집 계층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공간적 방언구획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2. 통합적 방언구획론의 개선방안

앞서 제시한 방언구획론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시도한 연구가 김덕호(1999)의 ‘통합적’ 방언구획 방법이다. 이 연구는 등어선의 두께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등어선에서 방언의 성격에 따라 등급화된 점수를 각각 연산하여 등어선의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²⁾ 등어선 기준으로 대립적인 두 어형(언어 특징)에 대하여 각각 [+ 점수], [-점수]로 수치화하고 이를 곱하기 연산을 통해 점수를 차등 산출한다. 그리고 <표 1>처럼 각 지점 별로 각각 합산하는 통계 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점수를 내고 이를 언어지도의 각 지점에 표시한다. <그림 1>

<표 1> 통합적 방언구획을 위한 점수 산정법(김덕호, 1999:53)

방언형 지점	‘가’형 (5점)	‘나’형 (4점)	‘다’형 (3점)	‘라’형 (3점)	‘마’형 (2점)	‘바’형 (2점)	‘사’형 (1점)	‘아’형 (1점)	‘자’형 (1점)	계 (22점)
a	-5	-4	-3	-3	-2	-2	-1	-1	-1	-22
b	-5	-4	-3	-3	-2	-2	-1	-1	-1	-22
c	-5(+5)	-4	-3	+3	+2	+2	+1	+1	+1	+3
d	-5	-4(+4)	+3	-3	-2	-2	+1	-1	-1	-15
e	-5	-4(+4)	+3	-3	+2	-2(+2)	+1	+1	+1	0
f	+5	+4	+3	+3	+2	+2	+1	+1	+1	+22
g	+5	+4	-3	-3(+3)	-2	-2(+2)	-1	-1	-1	+1
h	+5	+4	-3	+3	+2	-2(+2)	+1	-1	-1	+10
i	+5	+4	+3	+3	+2	+2	+1	+1	+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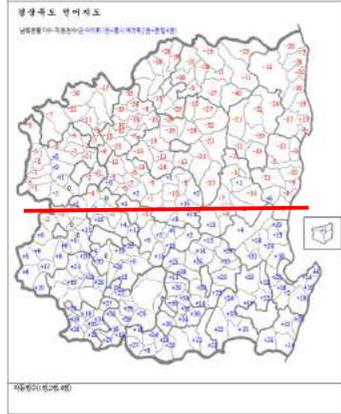
2) 김덕호(1999: 52)는 ‘방언 등급 측정법’을 적용하여 등어선 종류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책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a(-22)	b(-22)	c(+3)
d(-15)	e(0)	f(+22)
g(+1)	h(+10)	i(+22)

<그림 1> 예상 통계분할지도



<그림 2> 동/서 통계분할지도



<그림 3> 남/북 통계분할지도

이러한 방법론을 경북방언권에 적용하고 있는데, 각 지점의 방언형을 점수화하여 합산한 결과를 동/서, 남/북 통계 언어지도 2장을 제작하고 (<그림 2>, <그림 3>),³⁾ 동/서, 남/북 기준 점수를 각각 분석하여 1차 구획을 총점의 50%이상으로 구분하고, 2차 구획을 25%이상과 10%이

3) 남/북, 동/서 대립형의 분석은 카아토그램(cartogram)의 기법을 활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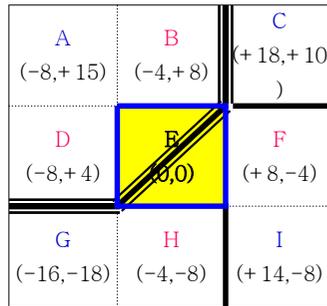
상으로 구분 설정하여 구획한다. 그리고 10%미만은 전이지역으로 설정하여 구획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 처리된 두 가지 형태의 언어지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경북의 하위 방언구획지도를 다음 III장 1절에 제시한 <그림 13>과 같이 완성하고 있다.

그런데 김덕호(1999)의 통합적 방언구획은 동/서, 남/북 통계 수치를 종합할 수 있는 통계 처리법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김덕호(2018)에서 이를 종합할 수 있는 처리 방법으로 사분면 산점도 좌표분석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표 2>는 <표 1>처럼 처리된 동/서, 남/북 합산 점수를 통계처리를 위해 2 가지 데이터를 종합하여 입력한 것이고, <그림 4>는 방언구획을 위한 예상 통계분할지도의 예시이다. 그 결과 2개의 큰 구획과 3개의 작은 구획, 전이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E는 동/서, 남/북의 전이지역이고, B, H는 동/서 구분의 전이지역이며, D, F는 남/북 구분의 전이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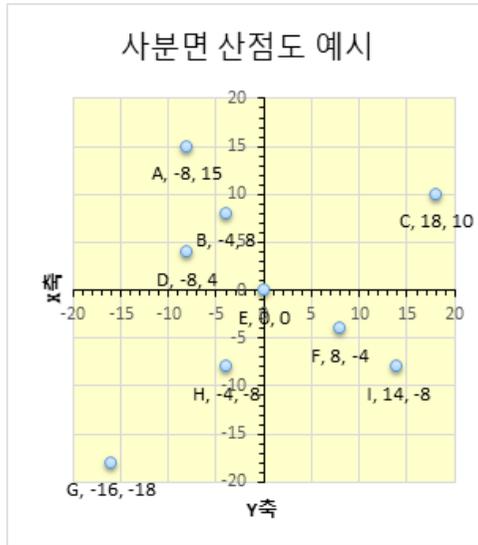
<표 2> 종합적 점수 산정법

연번	대상 지역	x축 (동/서)	y축 (남/북)
1	A지점	-8	+15
2	B지점	-4	+8
3	C지점	+18	+10
4	D지점	-8	+4
5	E지점	0	0
6	F지점	+8	-4
7	G지점	-16	-18
8	H지점	-4	-8
9	I지점	+14	-8



<그림 4> 예상 통계분할지도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분면 산점도의 좌표 지도를 그린 것이 다음 <그림 5>이다.



<그림 5> 사분면 산점도 좌표지도

위 <그림 5>의 산점도는 다시 다음 <표 3>의 등어선 구분 배점표를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10% 미만은 융합대역으로 두 방언형이 병존하거나 혼합되어 있는 전이지역라고 할 수 있다.⁴⁾ 나머지 지역은 구분 대역으로 x좌표 절대값이 상위인 동/서 구분 등어선과 y좌표 절대값이 상위인 남/북 구분 등어선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4) 이기갑(1986:128)에서 조사항목의 10% 미만은 방언의 점진성에 의거하면 자연스러운 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처럼 10% 미만의 차이라는 것은 두 방언형이 융합되거나 공존하고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인식되지 않는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다.

<표 3> 등어선 구분 배점표(*좌표값은 절대값으로 산정함)

	동/서 $x \leq 100\%$	남/북 $y \leq 100\%$	등어선 구분	좌표값 산출 범위 (100점 가정)
구분대역	10%이상 ~ 100%		동/서 구분 등어선(x우위) 남/북 구분 등어선(y우위)	$10 \leq x \leq 100$ $10 \leq y \leq 100$
융합대역	10%미만 ~ 0%		전이지역 등어선	$0 \leq x \leq 9$ $0 \leq y \leq 9$

III. 영남 방언권의 하위 방언구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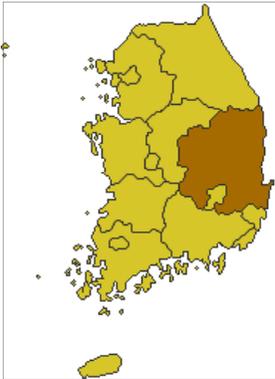
한국의 영남 방언권을 경상도 방언권이라고도 한다. 이 경상도 방언권은 다시 경북방언권과 경남방언권으로 나눈다. 남북 구분의 가장 큰 이유는 성조의 분화에 대한 차이이다. 즉 경북은 고조, 저조, 음장으로 성조가 구분되고, 경남은 고조, 저조 혹은 중조를 구분되면서 음장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경북과 경남을 크게 구분하고 있다.

경상도 방언구획은 김영송(1963), 천시권(1965), 이기백(1969), 김영태(1975), 박지홍(1983), 김택구(1991), 최명옥(1994), 정철(1997), 김덕호(1999), 정성훈(2016)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김영송(1963), 최명옥(1994), 정성훈(2016)은 경상남북도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고, 김영송(1963), 김영태(1975), 김택구(1991)는 경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천시권(1965), 이기백(1969), 정철(1997), 김덕호(1999)는 경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방언구획에 대하여 최명옥(1994: 862)은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경상도에 대한 중방언구획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북과 경남을 각각 하위 방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연구자들이 제시한 결과는 각각 언어체계의 극히 일부에 의한 방언구획 결과로 판단되므로 일치성의 문제를 고려하면 그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 셋째 각각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방언구획의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방언구획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최명옥(1994)에서 경상도의 중방언구획 과정을 통해 하위 방언구획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성조형과 몇몇 어형의 음운규칙과 어간재구



<그림 6> 연구 대상 지역

조화, 문법형태의 차이를 분석하여 경북과 경남을 각각 하위 방언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문제점에 대한 해명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나머지 문제점들도 해결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남 방언권에 대한 최명옥(1994)의 하위 방언구획에 대한 첫 번째 견해를 인정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고는 영남 방언권에서 북부 하위 방언권인 경북 지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⁵⁾

1. 양적 연구 방법에 의한 구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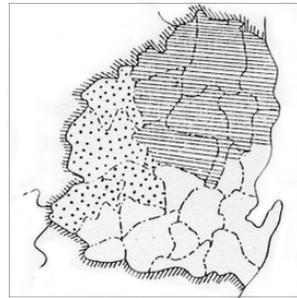
경북 방언구획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천시권(1965)과 이기백(1969), 최명옥(1994), 정철(1997), 김덕호(1999), 정성훈(2016)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필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북 구획에 대한 기지의 사실을 바탕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방언들을 수집했다.⁶⁾ 방언형의 수집 과정뿐만 아니라 연구 절차와 이후 조사된 방언형의 분석 방법도 특정의 언어적인 특징들을 기준으로 경북 방언구획을 시도한 양적 연구법에 의한 연구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다.

5) 2018년 시점으로 보면 경북은 23개 시군(10시,13군) 332개 읍면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다.

6) 정성훈(2016)의 경우는 1980년대 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전국 방언의 조사 결과를 이익섭 외(2008)의 <한국언어지도>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이다.

천시권(1965)의 경우는 어말의 의문형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방언구획을 시도하고 있다.<그림 7>

그 결과 제1지구(-능교型 지역: 대구, 경주, 달성,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군위, 영천, 월성, 영일, 포항, 청송, 영덕 포함)와 제2지구(-니껴型 지역: 안동, 의성, 예천, 의성, 봉화, 영양, 영주, 울진, 청송 일부), 그리고 제3지구(-여型 지역: 상주, 선산, 김천, 금릉, 문경)으로 경북 하위 방언구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7>

- 제 1 지구 - □ 능교型
- 제 2 지구 - ▨ 니껴型
- 제 3 지구 - ▤ 여型

<표 4> 천시권(1965)의 방언구획을 위한 언어학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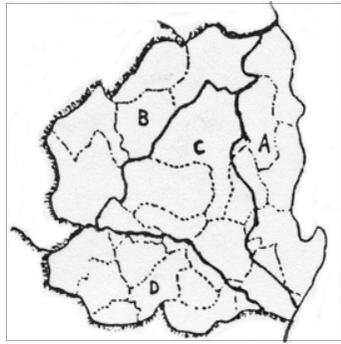
언어학적 유형		내 용
문법적 요소	어말의 의문형 종결어미(3항목)	-능교(능교), -니껴(니껴), -여

이기백(1969)은 음운, 어휘, 문법을 분리하여 연구하면서 음운, 어휘 및 문법적 기준에 의한 2개의 경북방언구획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표 5> 이기백(1969)의 방언구획을 위한 언어학적 요소

언어학적 유형		내 용
음운적 요소	'jə/ε/i'(4항목), '-lk'(2항목)	별(星), 별, 병(病), 벼락 / 닭, 맑다
어휘적 요소	순수 어휘 및 통시적 어휘(4항목)	삼/{수곱포}, 통시/{뒷간, 직간}, 구유, 죽통/{구이}, 두부/{조피, 조포}
문법적 요소	의문형 어미(3유형 8항목)	제1유형(4)- '-지{찌}예, -지{찌}야, -능{ㅇ}교, -능기{깡}가' / 제2유형(3)- '-디껴, -니껴, -끼껴' / 제3유형(1)- '-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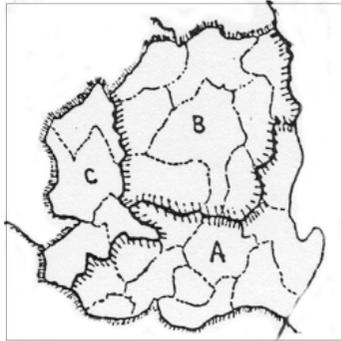
먼저 음운과 어휘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음운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동남반부(동북 해안지역/내륙지역)와 서북반부(서북 접경지역/내륙지역)로 구획하고 있다. 어휘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A.동북 해안지역(울진, 영덕, 영양, 청송 일부, 영일)과 B.서북 접경지역(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 C.중부 내륙지역(안동, 의성, 청송 일부, 군위 일부, 선산, 영천, 월성)과 D.남부지역(금릉, 칠곡, 성주, 고령, 달성, 대구, 청도, 경산)으로 하위 방언구획을 하고 있다.



<그림 8> 음운 어휘 기준

<그림 8>

다음으로 의문형어미를 대상으로 한 문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제1유형으로 실현되는 A.남반부지역(성주, 칠곡, 군위, 영천, 영일, 포항, 영덕)과 제2유형으로 실현되는 B.중북부지역(영주, 봉화, 문경 일부, 안동, 울진, 군위, 영양) 그리고 제3유형으로 실현되는 C.중서부지역(상주, 선산, 김천, 문경 일부, 의성 일부)으로 하위 구획을 시도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의문형 어미 기준

최명옥(1994: 889)은 방언구획을 위한 조사 항목은 특수한 어미류나 어휘 중심에서 벗어나 방언 간의 체계적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표 6>처럼 방언 등급법을 적용하여, <표 7>처럼 총 70개 항목의 등어선별 목록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상도 방언구획을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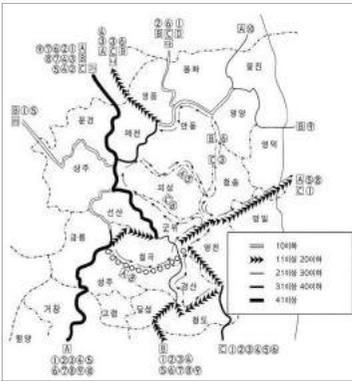
〈표 6〉 최명옥(1994: 881)의 등어선 종류에 따른 수치

등어선의 종류		수치
어휘 등어선	순수어휘적인 것	1
	통시적 규칙이나 통시적 음운목록과 관련된 것	2
음운 등어선	음소적인 것(목록과 규칙)	3
	운소적인 것(목록과 유형)	4
어법 등어선	문법형태와 재구조화 어간	5
	통사 및 의미적인 것	6

〈표 7〉 최명옥(1994)의 방언구획을 위한 언어학적 요소

언어학적 요소[70항목]	
음운	음운목록[4항목], 어간 재구조화[3항목], 음소변동[4항목], 음소변화[7항목], 성조유형: 2음절[10항목], 3음절[17항목], 4음절[11항목]
어휘	어휘[9항목]
어법	종결어미[3항목], 연결어미[2항목]

〈그림 10〉은 최명옥(1994:877)의 경상도 방언구획지도에서 경북 지역만 따로 보여주는 등어선도이다. 최명옥(1994:890)에서 경북방언은 경북서부방언(문경, 상주, 선산, 금릉)과 경북중동부방언으로 크게 2분하고, 이를 다시 경북중동동부방언(울진, 봉화, 영풍, 예천, 안동, 영양, 의성, 청송, 영덕, 군위, 영천, 영일, 경산, 청도, 경주)과 경북중동서부방언(칠곡, 성주, 고령, 달성)으로 작게 2분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경북 하위 방언구획지도 〈그림 11〉을 재구성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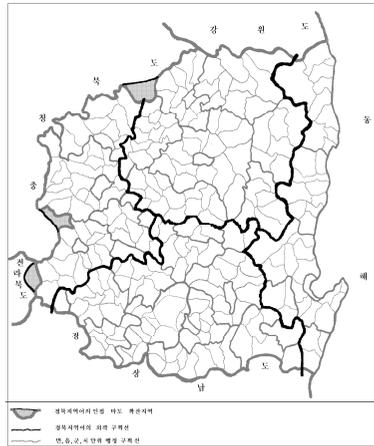
<그림 10> 최명옥(1994:877)



<그림 11>
최명옥(1994:890재구성)

최명옥(1994:3)은 앞선 천시권(1965)과 이기백(1969)의 방언구획이 언어체계의 극히 일부에 의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음운, 어휘, 어법에 의한 각각의 방언구획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 방언구획의 목표는 대상이 되는 방언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치중하여, 구성 자체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지만 하위 방언들을 구성하고 있는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철(1997)의 경북 방언구획은 <표 8>에서처럼 언어학적 항목으로 음소 체계와 관련된 요소[2항목-모음 ‘-:ㅏ’의 변별여부, 자음 ㅈ:ㅉ의 변별여부], 어휘적 요소[8항목], 문법적 요소[8항목-곡용, 활용어미의 차이] 기타[역양,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토대로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언 등급법에 따라 각 항목의 가중치에 의거한 차등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구획한 지도가 <그림 12>이다.



〈그림 12〉 경북지역어의
구획도(정철 1997:249)

〈표 8〉 정철(1997)의 방언구획을 위한 언어학적 요소

언어학적 유형		내용
음운적 요소	음운체계와 관련(3)	틀:틸, 글:걸, 쌀:살
어휘적 요소	순수 어휘 및 통시적 어휘(8)	아버지, 어머니, 오빠, 뒷간, 간장, 부엌, 떡-다, 틀리-다
문법적 요소	곡용 어미(3)	주제격(-은), 주격(-가), 대격(-를)
	활용 어미 및 어말 어미(5)	-어, -면, -느냐, -이나, -비니까/비니다
기타 요소	참여관찰에 의한 질적 연구	역양 및 지역 주민의 의식

김덕호(1999)의 경우는 경북의 조사 하위 단위를 읍면을 기준으로 하여 245개 지점을 정밀 조사한 결과이다. 이를 토대로 김덕호(1997)에서 제시한 71장의 경북언어지도를 대상으로 방언구획을 시도하고 있다. 특

히 이 연구에서는 경북방언지도를 동서 분화 패턴과 남북 분화 패턴으로 분석하여 남북분화형 33장과 동서분화형 30장의 경북방언지도를 추출하고 있다. 이를 어휘-음운-어법에 관한 특징으로 구분하고 방언 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각각 등어선 유형에 따른 값을 차등 적용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합산 결과값을 경북방언 백지도의 각 지점에 전송하여 앞서 제시한 동/서 통계분할지도<그림 2>와 남/북 통계분할지도<그림 3>을 제작하였다.⁷⁾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두 장의 통계언어지도를 합쳐서 통합형 경북 방언구획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표 9> 김덕호(1999:52)의 등어선 유형과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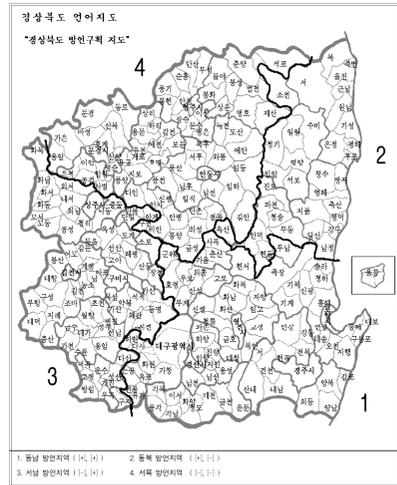
등어선 유형		값
어휘 등어선	순수어휘	1
	통시적인 규칙이나 음운목록	2
음운 등어선	음소 목록과 규칙 및 음소 변화	3
어법 등어선	문법형태와 재구조화 어간	4
	통사 및 의미적인 것	5

<표 10> 김덕호(1999:52)의 등어선 항목 수와 합산 결과값

등어선 유형		남/북 분화형	동/서 분화형
어휘	순수어휘(1)	12항목	6항목
	통시적인 규칙이나 음운목록(2)	8항목	14항목
음운	음소 목록과 규칙 및 음소 변화(3)	7항목	6항목
어법	문법형태와 재구조화 어간(4)	3항목	4항목
	통사 및 의미적인 것(5)	3항목	-
항목(총점)		33항목 (76점)	30항목 (68점)

7) 김덕호(1997)에서 개발한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메일머지와 매크로의 기능을 활용한 언어지도 제작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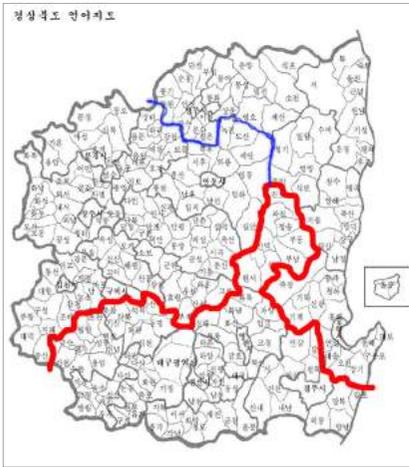
그 결과 <그림 13>과 같이 경북 방언권의 하위 방언구획을 4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제1지역[동남 방언 지역: 대구(구지 제외), 경산, 청도, 영천, 경주, 포항, 의성의 사곡, 춘산, 가음과 군위의 효령, 우보, 산성, 부계, 고로]와 제2지역[동북 방언 지역: 울진, 영양, 영덕, 청송(현서면, 부남면제외), 안동 일부(예안, 임동, 임하, 길안), 봉화(소천), 의성(옥산)]과 제3지역[서남 방언지역: 상주(은척, 이안, 공검, 사벌, 함창 제외), 김천, 구미(선산), 칠곡, 성주, 고령, 의성(단밀, 단북, 안계, 군위 소보), 대구(구지)] 그리고 제4지역[서북 방언지역: 상주(은척, 이안, 공검, 사벌, 함창) 문경, 예천, 영주, 봉화(소천면 제외), 안동(예안, 임동, 임하, 길안 제외), 의성(다인, 안사, 신평, 구천, 비안, 봉양, 안평, 단촌, 의성, 금성), 군위 의흥]으로 나누고 있다.



<그림 13> 경상북도 통합적 방언구획지도(김덕호 1999:62)

정성훈(2016)은 한국언어지도(2008)에 수록된 153장의 남한 중심 언어지도 가운데 144항목을 분석 자료로 삼고 있으며, 대상이 된 언어지도에서 발견되는 972개의 방언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처리한 결과이다. 조사지역(점) 즉 노드(node)가 연결된 배치와 구성을 분석하는 방법인 네트워크 분석법(network analysis)과 다변량 분석법(multivariate analysis)을 통해 영남방언 하위지역을 계층적 군집화 유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형도(dendrogram)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 <그림 14>은 정성훈(2016:250)에서 제시한 수형도(dendrogram, <그림 15>)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경북 방언구획지도이다.



<그림 14> 정성훈의 수형도(dendrogram)를 경북 방언구획지도로 재구성함



<그림 15> 정성훈(2016:250)의 수형도(dendrogram)

방언구획이 지역을 그보다 작은 방언으로 세분하는 일이라면 방언구획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비슷해야 한다. 그런데 앞선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경북 방언구획의 결과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계가 다소 차이가 난다.⁸⁾

결국 음운, 어휘, 어법 등에 의한 각각의 방언구획이 차이가 나므로 방언구획을 완료하려면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8) 경북 방언구획을 위한 선행 연구의 결과가 연구자마다 다르다는 것은 방언구획을 위해 적용한 분석 요소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즉, 천시권(1965)은 문법 3항목, 이기백(1969)은 음운 6항목, 어휘 4항목, 문법 8항목이고, 최명옥(1994)은 음운 56항목, 어휘 9항목, 문법 5항목, 정철(1997)은 음운 3항목, 어휘 8항목, 문법 8항목이고, 김덕호(1999)는 음운 13항목, 어휘 40항목, 문법 10항목이었다. 만일 서로 비슷한 분석 요소를 적용했다면 결과는 유사하게 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연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상 방언권의 음운적 방언구획론, 어휘적 방언구획론, 문법적 방언구획론 등으로 연구 목적에 맞는 방언구획론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만 비로소 방언구획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언구획법이 하위 방언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면 방언의 분화 연구뿐만 아니라 비교, 대조 연구에도 진일보한 결과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한 구획

도조 마사오(東條操, 1954)는 언어적 특징 외에 지리적, 행정적 구역과 화자의 방언 의식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쿠무라 미즈오(奥村三雄, 1958)는 방언구획의 방법으로 각 방언의 언어체계를 비교하거나 방언화자의 의식, 자연적 인문, 지리적 특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1984년에 그는 「방언구획론」에서 방언구획은 언어적 특징만을 가지고 구분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방언 의식, 행정구역, 지리적 환경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인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수정된 제안을 하게 된다.

정철(1997:105)은 방언구획을 하는 기타 요소로 지역 주민의 의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주장처럼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말이 같거나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즉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요인에 의해 방언 경계가 이루어지거나, 방언 화자의 심리적인 반응에 의해 방언 경계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김덕호(2001)은 이를 인상등어선(印象等語線, impressive isogloss)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김덕호(2012)에서는 인상등어선의 구획을 고려한 방언학의 연구 분야를 지각방언학(知覺方言學, Perceptual Dialectology)이라는 용어로 설정하기도 했다.⁹⁾ 이 논문들에서 그런 언급은 없었지만 연구 방법을 보면 본고에

9) Dennis R. Preston(1989)은 토착 화자의 언어 의식을 토대로 방언학 연구를 제안했는데, 그는 'Perceptual Dialectology'(지각적 방언학)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상규(1995)는 이미지 지도(image maps)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토박이 화자들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의 언어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서 분류한 질적 연구법에 의한 성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방언 경계를 단순히 종래의 언어학적인 등어선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 이유는 언어외적인 요인도 방언구획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박이 화자의 의식 속에 각인된 자기 지역의 방언구획이 살아있는 언어로서의 방언을 규명하는데 새로운 분석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고, 순수 언어학적인 요인으로 방언구획을 시도한 결과에 대해 검증 자료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제보자의 심리에 내재된 의식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에서 특별히 개발된 개방형 질문지를 가지고 심층 면접과 참여 관찰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방식은 방언학 연구에서 양적 연구를 목표로 한 현장 조사법과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현장 조사 방법이다.

이러한 질적 연구 조사법을 고려하여 조사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경상북도 245개 면을 최소 단위로 한 직접 조사 및 통신조사를 실시하면서, 질문 문항 속에 양적 연구법을 위한 문항뿐만 아니라, 방언구획에 대한 의식을 묻는 문항도 만들어서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9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재확인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관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유효한 응답자는 51명이었다.¹¹⁾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북의 서부 지역인 김천, 문경과 북부 지역인 예천, 안동, 영양과 남부 지역인 군위, 영천과 동부 해안 지역인 영일, 영덕, 울진 등 10개 지점을 현장 조사하면서 참여 관찰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였다. 다만 처음 조사 시기와는 시간적 차이가 나므로 단순 확인용 자료로 활용했다.

심층 면접용 개방형 질문지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질적 연구를 수행

10)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보면 ‘정량적(定量的, 양을 헤아려 정하는)’과 ‘정성적(定性的, 물질의 성분이나 성질을 밝히는)’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연구 목표와 조사 계획 및 방법뿐만 아니라 분석 과정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종합할 수 있는 과정을 보이므로 하므로 사회과학연구법에서 수립한 ‘양적’, ‘질적’, ‘혼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1) 제보자의 소개는 김덕호(2001:5)에서 자세하게 기술했다.

했다.

1. 제보자께서는 이 고장 말씨가 어디까지는 같고, 어디까지는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구체적인 동네 이름이나 면 단위 혹은 군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2. 그렇다면 이 고장 말 중에서 다른 고장과 다르게 사용하는 말이 있으면 말 씀해 주십시오.

주로 제보자의 생각을 묻는 내용이므로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인근 다른 지역을 지나왔는데, 그 지역의 말씨가 이 지역과는 다르거나 혹은 유사하다고 자연스럽게 먼저 말을 꺼내면 대부분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정오(正誤) 반응이 있었다. 이런 반응을 유도한 뒤 질문을 시도할 경우, 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다수의 제보자에게서 제보 내용을 수집할 수 있었다. 실제 현지 조사를 하다보면 제보자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의 언어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제보자의 성별이나 학벌 및 직업과도 상관이 없으며, 다른 지역의 말에 의한 감염 정도에도 크게 상관이 없다. 또한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단지 언어 형성기(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출생 지역에서 성장했다면, 이와 같은 인식을 대체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텃말에 대한 감춰진 위세(covered prestige)라고 볼 수 있다.¹²⁾ 이는 자신의 방언에 대한 보수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 농촌지역과 어촌지역 태생의 토박이 화자가 통상 신분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반상(班常)의 차이에 의한 차별적 언어 의식보다는 더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김덕호 2001:237)

보통 농업을 주로 하는 내륙지역과 어업을 주로 하는 해안지역을 변

12) 텃말이란 태중(胎中)에서부터 들었던 말씨를 뜻하는 용어로 ‘텃말두레’라는 재야 시민 단체에서 지역말 보전 운동을 하면서 ‘지역어’ 대신에 부르는 말이다.

별하고자 하는 제보들이 많았는데, 이는 반상에 대한 의식이 작용한 차별적인 제보이겠지만 관찰자 입장에서는 방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안동의 경우는 반촌과 민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 다르다고 인식한 제보가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아배-아부지) 그리고 어말 어미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³⁾

그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천시권(1965)에서 제2지구로 구획한 ‘니껴?’형 지역의 경우, 예천은 안동과 봉화, 영주와 유사한 말씨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상주, 점촌, 김천과는 다른 말씨라고 보고 있다. 예천 용궁면의 제보자는 인접한 문경의 산양면 일부 지역의 말과 유사하다고 세부적으로 제보하였다. 영주는, 영주와 안동, 봉화는 비슷한 말씨로 인식하고 있고, 예천, 상주와는 다소 다른 말씨로 생각하고 있으며, 울진과는 아주 다르다고 제보하였다. 봉화의 경우는 영주와는 아주 많이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안동과도 말씨가 비슷하다고 제보하고 있다. 안동은 안동, 예천, 영주, 봉화, 영양을 같은 방언권으로 인식하고, 의성과 상주, 문경을 다르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영양에서는 울진과 영양이 서로 다른 말씨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울진과 영양의 경계에 높은 산들이 위치하고 있어 서로 통행을 막은 결과로 보인다. 울진에서는 울진군내의 정밀한 차이를 제보하고 있는데, 울진군 원남면을 중심으로 북 울진과 남 울진이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3지구로 구획한 ‘-여?’형 지역의 경우는 충북과 경계인 문경은 이화령을 가운데로 두고 충북과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주와는 같은 말씨이나 동쪽으로 인접한 예천과 차이가 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상주뿐만 아니라 선산, 김천까지도 비슷한 말씨를 사용하고 있다고 제보

13) 안동은 ‘뒤흠니껴?’처럼 부드러운 말끝인데, 동쪽 해안에서는 ‘뒤흠니껴?’처럼 억센 말끝으로 마친다고 하면서, 어미의 강약 차이로 구획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가면 ‘뒤흠해여?’, 남쪽으로 가면 ‘뒤흠능교?’라고 한다고 하면서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14) 金德鎬·岸江信介·瀧口惠子(2012: 123-128)에서 기술한 부분을 정리했는데, 특히 참여 관찰로 확인이 용이한 의문형 종결 어미 ‘-능교?’, ‘-니껴?’, ‘-여?’를 기준으로 구획한 천시권(1965)의 결과를 참조하면서 비교 분석했다.

하고 있다. 상주는 충북과 경계를 끼고 있는 지역인 만큼, 아주 다양한 인식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상주, 선산, 김천은 같은 말씨를 보이고 있으며, 소백산을 가운데로 하여 충북의 보은, 괴산은 다른 말씨이고, 경북 쪽으로도 의성, 예천, 안동, 칠곡과 말씨가 차이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의성과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씨가 차이난다고 제보한 경우도 있다. 그 가운데 상주의 모동과 옥산, 청리가 선산, 김천과 말씨가 다르다는 제보는 세부적인 차이를 인식한 결과로 특히 상주 쪽의 모동은 충북과 전이지역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사례가 조사되었다. 의성은 군위와는 같은 말씨임을 제보하고 있다. 그리고 안동지역 제보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안동, 예천과 같은 말씨임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성읍과 안평면 일부지역이 안동과 인접해 있어 안동 말씨를 닮았다고 생각한 결과이다. 같은 군내일지라도 의성 남부지역인 금성면은 안동과 다르다고 제보한 사실이나 평야 지역인 의성 서부와 산악 지역인 의성 동부 지역을 다르게 인식한 것은 경북 내의 중심 전이지역(transition area)으로 의성을 지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구미 선산에서의 제보자는 상주와 칠곡 가산까지가 유사하고, 다부동 고개를 경계로 칠곡 동명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김천은 상주 말씨와는 유사하고, 남쪽인 구미와 성주와는 말씨가 다소 차이나는 것으로 제보하고 있다.

제1지구로 구획한 ‘능교?’형 지역에서 성주의 경우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칠곡과 대구(달성군)와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칠곡의 제보자는 전반적으로 대구와 말씨가 유사하다고 제보하고 있다. 단, 칠곡의 약목은 오히려 상주와 유사하고 대구와는 조금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군위에서는 의성과는 유사하고, 영천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앞서 제시한 것처럼 의성도 봉양면까지는 유사하고, 의성읍은 다르다고 인식한 사실은 의성을 경북방언의 중심 전이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보이다. 대구와 달성의 제보자는 청도와 경산이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산의 제보자는 청도와 영천이 같은 말씨의 지역으로 보고 있다. 영천의 제보자는 포항과는 말씨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

다. 청송에서의 제보는 지엽적인 내용으로 청송의 부남면과 청송읍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군내이지만 주왕산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이 다르다고 인식한 결과이다. 포항은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 경주라든가 영천과는 조금 다르고, 울산과는 아주 다르다고 제보하고 있는데, 울산과의 차이는 경남과의 도경계를 의식한 제보로 판단된다. 경주는 인접한 포항, 영천과 말씨가 다르고, 영덕도 다르다고 제보하고 있는데, 포항의 장기면이나 영천의 일부지역은 말씨가 비슷한 지점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교통망의 발달로 언어 전파에 의한 영향 때문에 이루어진 인식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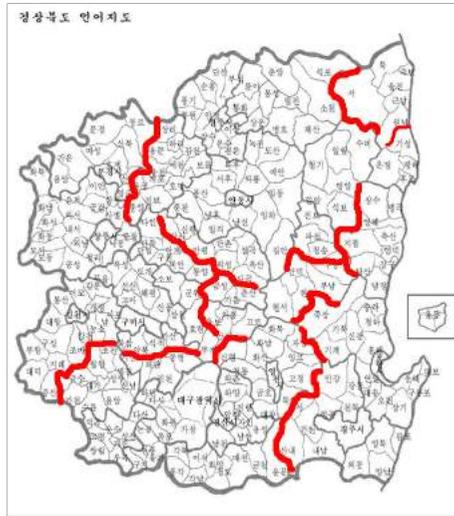
<표 11> 질적 연구법에 의한 조사 결과 정리표

지 점	설 문 결 과	천시권 (1965)
예천	예천=안동, 충청도//{죽령}/예천=안동=봉화, 예천(용궁)/문경(산양), 예천=안동=영주=봉화/점촌·상주·금릉, 문경(산양일부)=예천=안동/점촌, 상주, 예천=영주·안동, 예천/점촌·상주	니껴? 型 지역 (2지구)
영주	영주=안동, 영주=봉화, 영주/예천·상주, 영주//울진	
봉화	봉화=영주, 봉화=안동	
안동	안동=예천=영주//의성·상주, 안동=영주, 봉화//상주·의성·예천, 안동=예천=영주=봉화=영양//의성, 안동=예천//점촌·문경·상주, *남선면 뱀실/{길안천}/금소	
영양	영양//울진	
울진	북 울진/울진 원남/남 울진	
문경	문경=선산=상주=김천, 충청북도//{이화령}/상주=문경/예천	
상주	상주=선산=금릉(김천), 상주/예천=안동, 상주/칠곡군=대구, 상주//보은(충청도), 상주(화북, 화남)=충북(괴산군 송면면), 상주=점촌/{영강}/예천, 상주=점촌/예천·의성, 상주(청리, 옥산, 모동)//선산·김천, 충청북도//{소백산}/상주, 상주//{낙동강}//의성, 문경//{농암고개}//상주, 상주 화남(충청도 말씨) 상주 낙동(대구 억양)	여? 型 지역 (3지구)

의성	의성=군위, 의성=안동/예천, 의성(비안=안계)/의성(금성=가음), 의성서부(평야)/의성동부(산악), 의성(안평,의성읍:안동말씨)/의성(금성{비봉리,탑리},가음,춘산)	능교 型 지역 (1지구)
구미 (선산)	선산=상주, 선산=칠곡(가산){다부동고개}/칠곡(동명)·대구	
김천	김천=상주, 김천/구미, 김천/성주	
성주	성주=고령, 성주/{낙동강}/칠곡군, 성주/{낙동강}/대구(달성군)	
칠곡	칠곡=대구, 칠곡(약목)=상주, 칠곡(약목)/대구	
군위	군위=의성, 군위/영천, 군위=의성(봉양)/의성읍	
대구 (달성)	대구(달성)=청도, 대구(달성)=경산	
경산	경산=청도, 경산=영천	
영천	영천=경산, 영천/포항	
청송	청송(부남,부동)/청송(청운)	
영덕	영덕=포항, 영덕=울진 평해/울진 북	
포항	포항/경주, 포항/영천, 포항//울산, 포항=영덕	
경주	경주=포항(장기군)=영천 일부, 경주/영천 서부, 경주/영덕 북부, 경주 내남//{활천}경남, 경주//울산	

(≡ : 아주 유사함, = : 유사함, / : 다름, // : 아주 다름)

이상의 제보 내용과 분석을 토대로 질적 연구법에 의한 방언구획지도를 작성한다. 여러 장의 지도에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방언지역은 서로 묶고, 다르게 인식하는 지역들 사이에는 경계선을 넣는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각 지역별 구획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질적인 연구 조사법에서 심층 조사를 통해 수집된 방언화자의 심리에 내재한 방언구획에 대한 의식을 토대로 구획한 언어지도는 다음 <그림 16>이다.



<그림 16> 질적 연구법에 의한 경북 하위 방언구획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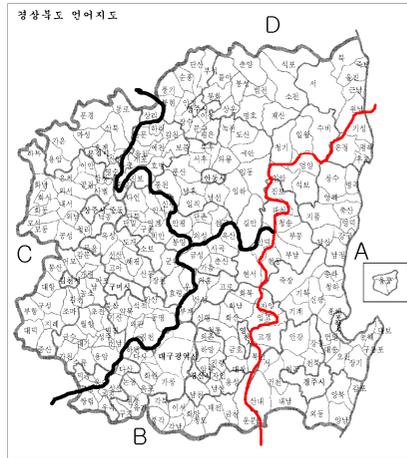
구획된 지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부 해안 방언구역(울진, 영덕, 포항, 경주)과 남부 내륙 방언구역(대구, 성주, 고령, 달성, 청도, 경산, 영천, 의성의 금성, 가음, 춘산, 군위의 우보, 산성, 의흥, 고로, 청송의 안덕, 부동, 부남, 현동, 현서), 그리고 서북 접경 방언구역(상주, 문경, 선산, 김천, 군위의 소보, 군위읍, 효령, 부계, 의성의 다인, 단북, 안계, 단밀, 구천, 비안, 봉양, 칠곡의 북삼, 약목, 석적, 가산.)과 북부 내륙 방언구역(안동, 영양, 봉화, 영주, 예천, 의성의 안사, 신평, 의성읍, 점곡, 옥산, 사곡, 청송의 진보, 파천, 청송읍)으로 4개의 하위 방언구획으로 나눌 수가 있다.

질적 연구법에 의한 경북 하위 방언구획에 대해 앞선 양적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은 언어학적 요소들을 토대로 하여 비교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문법적 요소인 어말의 의문형 종결어미를 기준으로 하위 방언구획을 한 천시권(1965)의 경우는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기백(1969)의 경우는 어휘적 요소의 경우는 동해안 구역과 거

의 일치하고, 의문형 어미를 기준으로 한 문법적인 요소의 경우는 천시권(1965)와 마찬가지로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한다. 최명옥(1994)의 경우는 서부 지역만 일치하는데, 이 서부 지역의 방언구획의 언어학적 요소는 주로 어휘적 요소와 문법적 요소(활용어미 류)이다.¹⁵⁾ 정철(1997)의 하위 방언구획은 질적 연구법에 의한 경북 방언구획 양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정철(1997)의 경우로는 대상으로 한 언어적 요소가 음운 체계에 관계되는 요소 2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어휘적 요소와 문법적 요소가 대부분이다.¹⁶⁾

이상의 내용을 이러한 방언구획을 이루어 내는데 작용했으리라 짐작한 언어적인 요소(어휘, 문법, 기타)를 바탕으로 통합한 정철(1997)의 구획지도 <그림 12>와 김덕호(2001)에서 인상등어선으로 제작한 구획지도인 <그림 17>을 함께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구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언화자의 심리 속에 내재된 자신의 방언권에 대한 언어의식은 언어학적 기준으로는 보면 어휘적인 요소와 문법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 현지조사에서도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¹⁷⁾



<그림 17> 김덕호(2001:17)의
인상등어선 구획지도

15) 서부지역을 구분하는 표제어는 문법 요소로 ‘-으니까, 읍+아, 꾸+아, 더버+아, 어둡+아’이고, 어휘적 요소로 ‘늡-, 굽-, 더워, 떡-’이 있다. ‘무섭고, 잡히고, 만들어도’는 성조 요소이다.

16) 억양과 지역 주민의 의식이 기타 요소로 언급되어 있다.

17) 예를 들면, ‘말끝이 무드러지다, 거세다’ 등으로 지역에 따라 느끼는 정도의 차이를 제보한 경우도 있고, ‘상대에게 묻는 말끝은 동서남북이 다르다’라는 차이점을 제보

경북방언구획을 시도한 선행 업적인 천시권(1965)과 이기백(1969)의 경우, 방언화자의 비언어적인 경계 의식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결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⁸⁾ 정철(1997)은 직접 ‘지역주민의 의식’을 고려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연성은 더욱 높아진다.

3. 혼합적 연구 방법에 의한 구획

앞선 질적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는 다시 양적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혼합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면 가능하다. 혼합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상호 보완적인 연구법이다. 1959년 캠프벨(Campbell)과 피스커(Fiske)가 심리적 특성의 타당도를 연구하는 과정에 ‘다중 방법 행렬(multimethod matrix)’ 연구법의 사용을 제안하면서 비롯되었다.¹⁹⁾ 혼합 연구 절차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연구 순서의 선후 배열과 어디에 더 중요성을 두느냐하는 연구의 비중 또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해석의 단계에서 언제 연구 자료를 혼합할 것인가 하는 절차에 대한 설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만일 연구 순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연구 비중은 동등하고 혼합 절차도 통합 방식이 선호되며, 이 경우 명확한 이론화가 가능하다. 또한 연구 순서

한 경우도 있다.

- 18) 지금까지 이루어진 방언구획에 관련된 연구 업적의 경우, 그 연구자가 바로 그 지역 출신 방언화자라면, 비언어적인 경계 의식이 방언구획을 이루어 내는데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방언구획을 연구한 분들 역시 지역 출신 방언화자들이기 때문이다.
- 19) 크레스웰(Creswell, 2011:17-18)에 의하면 혼합 연구 방법으로 질적 면접으로 시작하여 일반화를 위해서 모집단을 양적인 조사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양적 방법에서 시작하여 세밀한 탐구로 이행하는 질적 방법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혼합 연구가 있고, 연구자가 연구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양적, 질적 자료를 한데 모으거나 합병하는 동시적 혼합 연구가 있다. 그리고 연구자가 양적 및 질적 자료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의 설계 내에서 주제의 구조,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예상 결과 및 변화와 같은 이론적 시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변형적 혼합 연구가 있다.

상 질적 접근을 우선할 경우 연구 비중은 질적 연구에 있게 되고 연결형 혼합 절차를 선호하며 이론화도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연구 순서 상 양적 접근을 우선할 경우 연구 비중은 양적 연구에 있게 되고 혼합 절차도 내재형 방식이 선호되며 이론화의 과정은 다소 불명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Creswell, 2011:246-249 ; 김덕호, 2014:20-21 재인용)

앞서 III.2.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한 결과로 체보자의 의식 속에 내재된 비언어학적인 지각적 방언구획은 양적 연구 방법에서 중요시된 언어학적 요소로 문법 요소(곡용어미와 활용어미)의 차이와 어원적으로 다르게 생성된 어휘 요소인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실제로 김덕호(1999:62)에서 제시한 양적 연구법에 의한 ‘경상북도 방언구획지도<그림 13>’와 김덕호(2001:17)의 질적 연구법에 의한 ‘인상적 방언구획지도<그림 17>’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는 음운(음운목록과 관련된 어휘도 포함)[35항목/55%], 순수어휘[18항목/29%], 문법(통사적인 문장구조도 포함)[8항목/13%], 의미[2항목/3%] 분야를 각 항목의 점수를 차등하게 계산한 후 통합하여 이루어 낸 결과이고, 후자의 경우는 언어학적으로 어휘와 문법(어말어미) 분야를 위주로 방언구획을 시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역민의 지각 속에 내재된 방언구획의 경우, 언어학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볼 때 음운적 요소보다는 어휘와 문법 요소가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 연구에 의해 나온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김덕호(1997)의 양적 연구로 이루어진 70여 장의 언어지도 중에 음운적인 분화에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언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순수 어휘적인 것(19장)과 통시적인 규칙이나 통시적인 음운목록과 관련된 어휘등어선(22장) 그리고 문법적 등어선 가운데 어미에 따른 분화나 재구조화에 관련된 것과 통사적 문장구조에 의한 것(7장) 등 모두 48장의 언어지도를 따로 발췌하여 방언 등급법에 따라서 차등 배점하고 통합한 결과값을 산출했다. 그 결과 아래 <표 12>와 같이 동/서 분화형 총 50점, 남/북 분화형 총 40점으로 각각 산출할 수 있다.

<표 12> 방언구획을 위한 언어적 요소

	동/서 분화형-(25항목-50점)	남/북 분화형(23항목-40점)
순수어휘 18항목 (× 1점)	소꿍질, 딸(뜨럭), 가볍다, 옥수수, *첫가락(저/ 절), 대님	뽕죽하게(뽕죽/째뽕), *큰 아버지(伯父)(큰/맏), *큰아 버지(伯父)(아빠/아버지), 두 부, 부추, 상추, 회오리바람, 간장, 주걱, 구유, 번데기, 식혜
통시적 어휘 23항목 (× 2점)	대님, 수수, 머루, 가위, 홀 아버, 키, 벽, 가오리(鯪 魚), 그을음, 누에, 다리미, *뻬(뻬/비), 누이, 옆구리, 모래(沙)	애벌멘다, 달-오, 혀, (콩을) 불린다, 콩나물, 무:, 아궁이, 화:로(爐)
문법적 어미 7항목 (× 4점)	값+ 이(주격어미), 물+ 을 (목적격어미), 동생+ 에게 (여격어미), *뽕죽-하게(x 하게/x하구로)	*뻬(x가지/x다구), 공동격(나+ 와), *첫가락(x까락/x범)

아래 <표 13>은 등어선 구분을 위한 배점표인데, 여기에서 10% 미만은 융합대역으로 두 방언형이 병존하거나 혼합되어 있는 전이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나머지 지역은 구분 대역으로 x좌표 절대값이 우위인 동/서 구분 등어선과 y좌표 절대값이 우위인 남/북 구분 등어선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20) 이기갑(1986:128)이 설정한 10% 미만의 점수 차이라는 것은 두 방언형이 융합 혹은 공존하여 별다른 차이가 인식되지 않는 전이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합산 점수의 10% 미만인 50점의 5점미만과 40점의 4점미만은 인접지역 간의 점진적 차이로 볼 수 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방언권의 경계가 구획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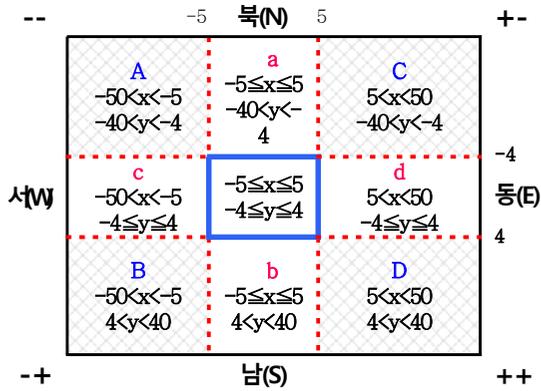
<표 13> 등어선 구분을 위한 배점표

		동/서-5 0점(x)	남/북- 40점(y)	등어선 구분	좌표값 산출 범위
구분 대역	10%이상~ 100%	6점~ 50점	5점~ 40점	동/서 구분 등어선(x우위) 남/북 구분 등어선(y우위)	$6 \leq x \leq 50$ $5 \leq y \leq 40$
융합 대역	10%~ 0% 미만	0점~ 5점	0점~ 4점	전이지역 등어선	$0 \leq x \leq 5$ $0 \leq y \leq 4$

다음의 <그림 18>의 사분면 산점도 좌표분석표에서 좌표값은 방언 등급법에 의해 합산 값을 산출할 때는 위치값으로 처리해야 하고, 위치값에서 +와 -의 지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경상방언 우세 지역을 +로 잡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로 잡아 위치값을 산출했다. 즉 ‘++’ 쪽은 경북의 동남구역, ‘+ -’ 쪽은 경북의 동북구역, ‘- +’ 쪽은 경북의 서남구역, ‘- -’ 쪽은 경북의 서북구역을 뜻한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x-y 좌표값으로 치환하여 동/서, 남/북의 사분면 산점도를 제작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수치값으로 전환하면 된다.²¹⁾ 좌표분석표에서 가운데 부분은 융합대역이고, 구분대역 중 a, b는 동/서 완충지역, 남/북 구분지역이고, c, d는 남/북 완충지역, 동/서 구분지역이다. A,B,C,D 는 동/서 혹은 남/북을 판단해야 하는 지역으로 x좌표 절대값이 높으면 동/서 구분이 우세한 지역이고, y좌표 절대값이 높으면 남/북 구분이 우세한 지역이 된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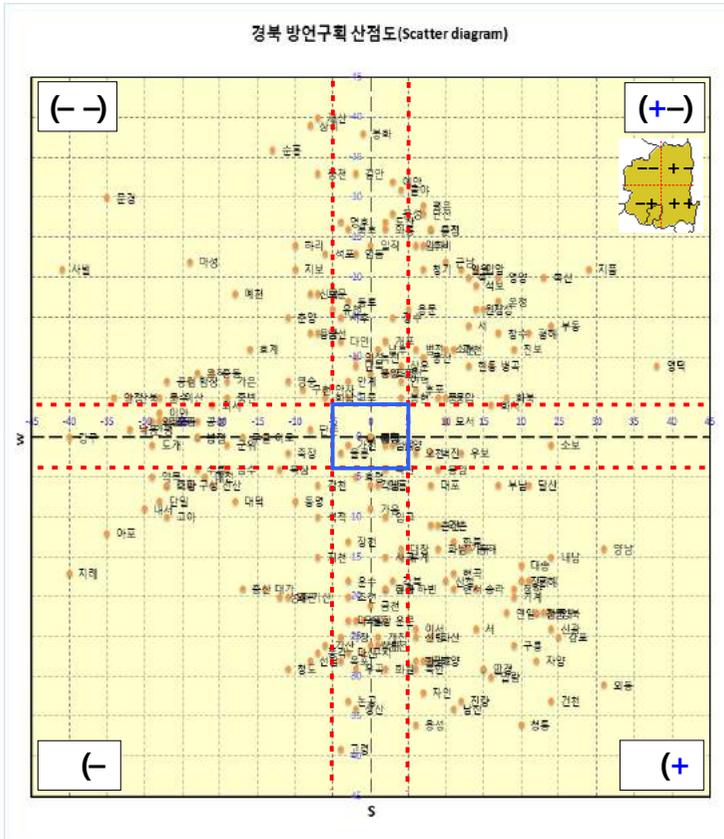
21) 수치앞에 붙은 ‘+ , -’는 위치값을 지정하고, 뒤의 숫자는 수치값이다. 위치값을 수치값으로 인식하고자 할 때는 절대값으로 치환하면 된다.

22) 어떤 지점의 직교좌표(直交座標)가 (-40,-10)이라면, 서북 방향으로 동/서 구분 등어선값 $x=140$, 남/북 구분 등어선값 $y=10$ 의 수치값을 가진 부분이다. 이를 분석해보면 이 조사 지점은 동/서 구분 등어선이 우위에 있는 방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8> 사분면 산점도 좌표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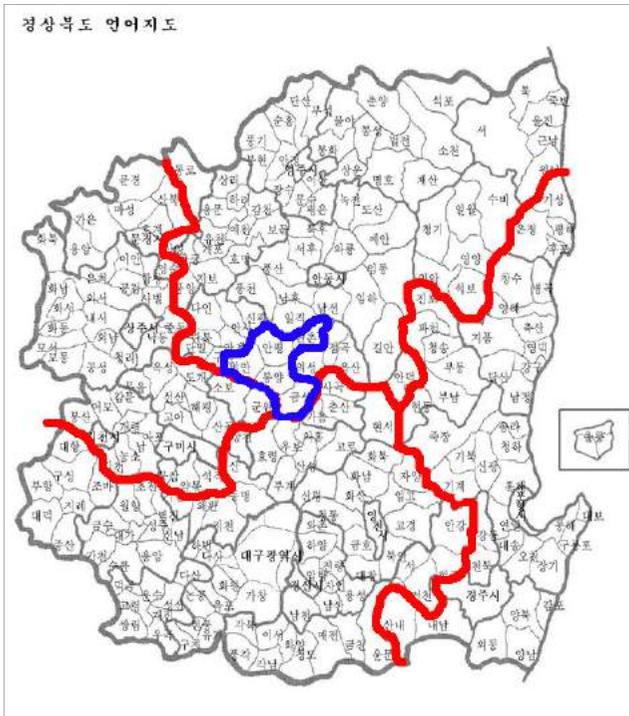
이를 토대로 다음의 <그림 19>과 같은 경북 방언구획 산점도(慶北方言區劃散點圖)를 제작해보았다. 이 산점도(scatter diagram, 散點圖)는 앞서 제시한 사분면 산점도 좌표분석표를 기준으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인 사분면 산점도 좌표분석법(四分面散點圖座標分析法)에 의해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9> 경북 방언구획 산점도(scatter diagram)

이와 같은 경북 방언구획 산점도를 바탕으로 245개 조사 지역별로 해당되는 동/서, 남/북 구분의 방언구획 특징을 실제 언어지도에 반영하여 다음 <그림 20>과 같은 경북 방언구획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김덕호(2001:17)에서 제작한 인상등어선에 의한 방언구획지도 <그림 17>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결국 혼합적 연구법에서 고안한 사분면산점도 좌표분석법과 같은 새로운 통계 처리 방안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말하자면 김덕호(1999)의 통합적 방언구획 방법론에서는 동/서, 남/북 통계 수치를 각각 다른 2장의 통계 지도로 만들어서 이를 수작업으로 비교하면서 분석했으나, 사분면 산점도 좌표분석법은 1장의 산점도 지도에서 각 조사지점의 방언권의 경향성과 전이지역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김덕호(1999)보다는 훨씬 정밀하게 종합할 수 있는 통계 처리와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0> 혼합적 연구법에 의한
경북 방언구획지도

IV. 맺음말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의 영남 방언권에서 특히 경상북도의 하위 방언구획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기존의 여러 가지 방언구획 방법론과 과정을 검증해보고 개선된 방언구획 처리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김덕호(1999)에서 제안한 ‘통합적 방언구획 방법론’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더욱 정밀하게 하는 ‘사분면 산점도 좌표분석법(四分面散點圖座標分析法)’과 같은 새로운 통계 처리법과 분석법을 개발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둘째, 지금까지는 방언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회방언학적 방법으로 ‘정량적 분석법’과 ‘정성적 분석법’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본고의 방언구획 방법론 연구에서는 연구 목표와 조사 계획 및 방법뿐만 아니라 분석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종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 분야에서 수립한 양적 연구법과 질적 연구법 및 혼합적 연구법의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결과, 향후 방언학 연구에서도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립한 연구방법론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었던 방언 화자의 비언어학적 기준(인상적 의식)에 의해 이루어진 방언 경계(dialect boundary) 의식은 주로 어휘적인 요소와 문법적인 요소와 같은 언어학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지역민의 의식 속에 녹아 있는 방언경계인 인상등어선(印象等語線, impressive isogloss)과 이러한 등어선을 토대로 한 방언구획을 연구하는 지각방언학(知覺方言學, Perceptual Dialectology)은 학술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최명옥(1994)에서 제기한 세 가지 문제점에서 첫 번째는 경상도에 대한 중방언구획의 과정을 받아들인다면 우선적으로 고-저, 장-단을 갖춘 경북과 장-단 없이 고-중-저(혹은 고-저)로 실현되는 경남을 1

차 하위 방언으로 구획한 이유는 바로 성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방언구획 연구자들이 제시한 결과는 각각 언어체계의 극히 일부에 의한 방언구획 결과이므로 일치성을 따지면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종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고에서 증명해 보았다. 세 번째는 각각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방언구획의 결과가 차이나기 때문에 방언구획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들을 종합할 수 있는 방법론과 지역민이 느끼는 방언 간의 다름과 유사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와 더불어 이를 종합할 수 있는 혼합적 연구법을 도입하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언구획의 결과가 완료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오쿠무라 미츠오(奥村三雄, 1984)가 방언구획은 방언 의식과 같은 비언어적 요인은 배제하고, 언어적 특징만을 가지고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문 연구자들의 방언구획 연구에 대해 그 방언을 구사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언 경계와 다르다면 그런 연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본 연구를 통해 방언학자들의 구획 연구 결과와 지역민의 방언 경계에 대한 의식 사이에 괴리감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 논문은 2019년 4월 2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김덕호, 『내일을 위한 방언연구』, 경북대 출판부, 1996.
- 김영태, 『경상남도방언연구(1)』, 진명문화사, 1975.
- 김충희, 『忠淸北道の 言語地理學』,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2.
- 방언연구회, 『방언학사전』, 태학사, 2001.
- 소강춘,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1989.
- 이기갑,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탑출판사, 1986.
- 이상규, 『방언학』, 학연사, 1995.
- 이익섭 외, 『한국방언지도』, 태학사, 2008.
- 이익섭, 『嶺東嶺西의 言語分化』,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 이익섭, 『방언학』, 민음사, 1984.
- 이희연, 『地圖學-主題圖 제작의 원리와 기법』, 법문사, 1995.
- J. Creswell(김영숙, 유성립, 박관우, 성용구, 성장환 외 역), 『연구 방법: 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시그마프레스, 2011.
- 김덕호,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1997.
- 김덕호, 「문화어문학: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의 모색」, 『어문론총』 61호, 2014, 9-44쪽.
- 김덕호, 「인상적 등어선에 대한 연구」, 『어문학』 73집, 한국어문학회, 2001, 1-20쪽.
- 김덕호, 「통합적 방언구획 방법론과 그 실제적 적용」, 『어문론총』 33호, 경북어문학회, 1999, 49-66쪽.
- 김덕호, 「한국 동남 방언권의 하위 방언구획 연구」, 『Descriptive and Contrastive Analysis on Languages of Northeast Eurasia 2』, 일본 니가타 대학 국제워크숍 발표지, 2018, 1-16쪽.
- 김영송, 「경남방언」, 『국어방언학』, 형설출판사, 1963/1974, 319-371쪽.
- 김택구, 「경상남도 방언의 지리적 분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1991.
- 박지홍, 「경상도 방언의 하위방언권 설정」, 『인문논총』 24, 부산대, 1983, 27-54쪽.

- 신승원, 「경북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분화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96.
- 이기백, 「경상북도의 방언구획」, 『동서문화』 3, 계명대 동서문화연구소, 1969, 183-217쪽.
- 정 철, 「동남지역어의 하위방언구획 연구」, 『어문론총』 31호, 경북어문학회, 1997, 145-250쪽.
- 정성훈, 「네트워크 분석과 하위 방언구획 연구」, 『한글』 311호, 2016, 227-256쪽.
- 천시권, 「경북 지방의 방언구획」, 『어문학』 13집, 한국어문학회, 1965, 1-12쪽.
- 최명옥, 「경상도의 방언구획시론」, 『우리말 연구』(권재선박사기념논문집), 우골담, 1994, 861-892쪽.

龜井孝·河野六郎·千野榮一編, 『言語學大辭典:術語編』, 東京:三省堂, 1996.

東條操, 『日本方言學』, 吉川弘文館, 1954.

金德鎬·岸江信介·瀧口恵子, 「慶北方言の知覚方言学に関する研究」, 『言語文化研究』 20, 徳島大學總合科學部, 2012.

柴田武, 「方言區劃とは何か」, 『日本の方言區劃』(日本方言研究會編) 東京: 東京堂, 1964.

柴田武, 「方言區劃の方法-「ネットワーク法」の開発-」, 『道立大方言學會會報』 106号, 1983.

奥村三雄, 「方言の區劃」, 『國語國文』, 1958.

奥村三雄, 「方言區劃論」, 『講座方言學2 方言研究法』, 東京:國書刊行會, 1984.

日本方言研究會編, 『日本の方言區劃』, 東京: 東京堂, 1964.

Carver, C.M., American Regional Dialects—a word geograph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1987.

Chamber, J.K. & Trudgill, P., Dialectology, Chambridge Univ., Press, 1980.

Deokho, Kim, Production of a dialect map utilizing Map Maker, Dialectologia, Universitat de Barcelona, 2010.

Deokho, Kim & Sanggyu, Lee, LINGUISTIC MAPS & DIALECT DATA

PROCESSING, Dialectologia, Universitat de Barcelona, 2016.

Preston, Dennis R., Perception Dialectology : Nonlinguists' Views of Areal Linguistics, Dordrecht [etc.]: Foris. -(Topics in Sociolinguistics;7), 1989.

Séguy, J., Les atlas liguistique de la France par Régions, Langue Francais 18, 1973.

Abstract

A Comprehensive Study of sub-dialect division in Yeongnam area

Kim, Deok-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esearch methodology for the dialectical division theory which is an important task in dialectology. This proposition can be made because dialectical division theory can be a central research subject in the study of dialectology if it is aimed to identify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dialects, and how the dialectical division occurs in the process of several dialectical divisions of one language.

I have developed and verified the applicability of new statistical processing method called 'quadrant scatter plot coordinate analysis method' which improved the analysis method of 'integrated dialect division methodology' proposed by Kim, Deok-ho(1999).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the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research method in socioscientific research method to the dialect division methodology, it is found that the mixed research method on mutual assistance in both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can also be introduced in the field survey on the future dialect study.

I can deduce that dialect boundary consciousness based on non-linguistic criteria (impressive consciousness) of the dialectic

speaker, which has been felt vaguely until now, was mainly operated by linguistic factors such as lexical elements and grammatical elements.

I can confirm that the setting of the perceptual dialect block for dialect boundaries in the impression of the local people is also academically valid.

keywords

Dialectical division theory, Gyeongbuk dialect area,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ixed research, Quadrant scatter plot coordinate analysis method